

## 창원 다호리유적의 철기

김상민 | 부여삼한실 104호 | 18:00~18:30

창원 다호리茶戶里유적은 삼한三韓 중 변한弁韓의 대표적인 무덤유적이다. 다호리의 무덤은 통나무 속을 파서 만든 관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관 아래에 부장 구덩이를 파고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담은 바구니를 넣었다. 바구니 안에는 철제 도끼, 낫, 쟁이, 따비 등의 농기구와 창, 칼, 화살과 같은 무기들, 제사에 사용했던 각종 철기 그릇들과 제사했던 음식들을 함께 묻었다.

그중에서 1호 무덤의 관내에 넣어둔 바구니에서는 다양한 철기와 함께 철제 농기구와 무기, 대외 교역품인 한漢의 동전과 청동거울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무덤의 형태와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기원전 1세기 후반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변한 일대의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어왔다.

한나라(중국)에서부터 넘어온 다양한 금속제품들과 함께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초기철기문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서 ‘낙랑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되었다. 다호리 1호 무덤의 철기들과 함께 출토된 중국의 화



그림 1.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와 청동기

폐와 청동거울이 한나라의 것들이므로, 이들 철기 역시 한나라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낙랑군 설치 이후 한반도 철기문화의 유입이라는 학설이 정설로 통하였다.

이후 장수 남양리, 완주 갈동유적 등 호남지역 여러 유적에서 연나라 계통의 철기류가 출토되고, 초기 철기의 ‘낙랑설’에 대한 여러 이견異見이 발표되면서 이제 다호리유적 철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철기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한 철기문화의 연구에서 다호리유적이 갖는 의미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호리무덤에서 출토된 철기생산과 관련된 단야 망치와 철광석은 당시 다호리 사회에서 철생산이 중요한 산업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동이 전東夷傳 진번조弁辰條에는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韓, 예濊, 왜인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문헌기록과 대비하여 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가 다호리유적인 것이다. 또한 마한馬韓지역의 나주 구기촌유적, 왜(일본)의 하루노츠지, 가라카미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류 역시 다호리유적을 비롯한 변한지역의 영향을 받은 철기로서 인식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변한 사회는 철을 매개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맺으며 번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호리유적은 철을 다루고 귀하게 여기던 당시 변한 사회의 모습을 추정할 있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철광석과 단야 망치

## 동아시아와 실크로드의 복식

민보라 | 중앙아시아실 307호 | 19:00~19:30

###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실크로드 혹은 서역西域이라고도 불렀던 중앙아시아는 동서문화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동북투르키스탄, 즉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와 타림분지에 있던 도시국가를 지칭하지만 범위를 확대하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의 서북투르키스탄을 합친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한漢 무제武帝(재위 B.C.141~87)이후 서역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꾸준히 동서 교류를 추진해왔다. 6~12세기는 중국에서는 수隋(581~618)·당唐(618~907)을 비롯하여 한국의 신라·고구려·백제, 일본은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등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각 나라의 사회·문화가 서로 영향을 받고 융합되는 시기이다. 713~765년에 이르면 당의 수도 장안長安이 최고의 국제도시가 되었다. 서역에서 들어온 문화는 곧 새로운 유행으로 이어지고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 확산되었다.

### 호풍胡風의 유행

서역에서 유입된 호복胡服,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화전花鈿, 독특한 머리모양과 화장법 등은 중국의 고유한 양식에 흡수되어 당 특유의 스타일로 전개되었다. ‘호胡’라는 말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유입된 서역의 문화를 호풍胡風으로 불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호식胡食, 호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풍이 유행하였다. 호복의 형태는 소매가 좁고 옷깃이 젖혀진 번령포翻領袍가 대표적이다(그림 1). 이 옷에 첩섭대靴帶를 두르고 목이 있는 신발을 신는다. 첩섭대는 첩섭칠사靴七事라고도 하는데 유목민들이 휴대하는 생활필수품을 혁대에 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그림2와 같이 당대 여성들 사이에는 독특한 화장법과 머리형태가 유행하였다.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마치 가발처럼 만들어 얹은 것은 위구르를 의미하는 회골을 붙여 회골계回鶻髻라고 하였다. 또 얼굴에 연분을 바르고 눈썹을 따로 그려넣는 등 독특한 화장법이 잘 나타나있다.



## 중국 관복제도의 확산: 단령團領과 복두幞頭

당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당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당의 단령과 복두를 예복으로 도입하였다. 단령은 깃을 둥글게 만든 겹옷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족 고유의 양식이 아니라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이 옷은 수·당 시대에 토착화되어 당시대를 대표하는 옷차림이 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남자의 모자인 복두는 건巾, 즉 머릿수건의 일종으로 시작되어, 점차 모자의 형태가 딱딱한 재질로 변화되면서 모양과 명칭이 다양해졌다. 우리나라의 사모관대紗帽冠帶, 일본의 속대束帶는 당시대에 받아들인 단령과 복두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호북  
신강 투루판 아스  
타나 230호묘 출토  
신강 웨이우얼자  
치구박물관 소장



그림 2. 당나라  
여성의 화장법



그림 3. 단령과 복두(당)

##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4)

권혜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사회 기반은 농업이었다. 때문에 이상적인 산수의 아름다움과 그 땅을 일구는 농촌의 풍경을 노래하며,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이상적인 삶은 시서화詩書畵의 주된 주제가 되었다. 중국 북송대北宋代, 풍속화를 잘 그리기로 유명했던 화가 장택단張擇端(생몰년 미상)은 11세기 말~12세기 초, 청명절淸明節을 맞은 북송의 도성인 변경汴京[지금의 허난성(河南省) 카이펑(開封)]의 변화한 모습을 묘사한 대작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를 완성하였다. 6미터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에는 변경을 흐르는 변하汴河를 사이에 두고, 교외의 자연 풍광에서 시작하여 각종 상점들과 상인, 우마차 및 군중들이 붐비는 도심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해냈다. 다양한 장면들이 복잡하게 얹힌 가운데 이처럼 풍부한 물자와 활력이 넘치고 변화한 <청명상하도> 속 도시의 모습은 태평 성대한 국가가 꿈꾸었던 또 다른 이상향이였다.

이 작품은 당시 및 후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원元~청淸에 이르기까지 제작되었는데, 작품이 크게 알려지게 된 것은 명말明末 시기로, 성시도城市圖가 유행하며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후 수많은 모본模本이 성행하게 되었다.

<청명상하도>에 대한 관심은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이어져 태평성대한 도시의 풍경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이 탄생했다. 조선에서는 <성시도城市圖>가 그려졌고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토京都의 풍경을 그린 <낙중낙외도洛中洛外圖>, 에도(江戸)의 변화한 모습을 그린 <에도도(江戸圖)> 등이 그려졌다. 도시화에 따라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이제 자연 뿐만이 아닌, 풍요롭고 변화한 대도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림 1.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부분), 구영仇英(?~1552), 중국 명명, 비단에 색絹本彩色, 중국 랴오닝성박물관